

본 브리핑은 페로타임즈 편집국에서 매주 발간하는 Report입니다.  
원료, 가격, 해외동향 등을 유료회원에게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주간 시황 Report

2021. 05. 01. 제 45 호



**페로타임즈**  
F E R R O T I M E S

## ( 요약 )

### 1. 5월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 철광석 고공행진 수급 타이트 지속 ... “193.7달러” 사상 최고치 기록
- 철스크랩 국내 5월 상승 본격 전환 ... 중국향 수출 중량 530달러
- 글로벌 철강價 2분기 방향성 확정 ... 3분기까지 강세 지속
- 국내외 철강사 5~6월 인상 확정 ... 하락 요인은 ‘미약’

### 2. 철광석

- 中 정부 생산억제 ‘역부족’ ... 제철소 생산 ‘피치’
- 철광석 원료탄 가격 신기록 경신 ‘재상승 국면’

### 3. 철스크랩

- 국내 본격 상승 전환 ... 4월 중순 하락 조정 후 5월 ‘인상’
- 국내외 철근 등 초호황 고철 강세에도 마진폭 증가
- 한국-해외 시세 격차 8만원, 제강사 국내 집중

### 4. 철강재

- 中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 한국 ‘600만톤’ 수입 공백 발생
- 국내 철강재 신고가 연이어 ... 열연 100만원, 형강 100만원 초읽기
- 철근 ‘품귀 현상’ 지속, 수입산 주도 추가 상승세 전망
  - . 본계강철 한국향 오피 급등 열연 FOB 860달러/냉연 920달러
  - . 중국산 현지 오피 열연 FOB 922달러, 철근 702달러
- 중국 내수 가격 열연강판 실질 1천달러 넘어서
- 상해 내수가 4월 30일 열연 5840위안, 철근 5270위안 주간 140, 110위안 ↑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시황분석리포트

## 2021년 5월 1주차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 [FERRO INDEX] 철강재 및 원료 가격 종합

단위 : 달러/톤, CFR

구분	세부 항목		3-5주	4-3주	4-4주	변동폭	
						일주일	1개월
철광석 원료탄	글로벌	Fe 62%	166	185	190	5	24
		강점결탄	214	221	224	3	10
철스크랩	미국산	터키 HMS 1&2	430	430	440	11	10
		애플 HMS 1&2	442	455	466	11	24
		대만 컨테이너	401	422	431	9	30
	일본산	일본 H2 (백엔 FOB)	410	435	439	4	29
		*H2 한국도착(천원)	460	492	491	-1	31
	중국	45개市 내수 평균 (위안)	2,946	3,036	3,102	66	156
		HRS101(중량) 수입 (달러)	448	496	503	7	55
중국 철강재	열연	본계강철 한국향(FOB)	750	820	860	40	110
		중국 오퍼(FOB)	770	900	922	22	152
		중국 내수 가격(위안)	5,590	5,700	5,840	140	250
	철근	사강강철 한국향(CFR)	705	-	-	-	-
		중국 오퍼(FOB)	680	700	702	2	22
		중국 내수 가격(위안)		5,160	5,270	110	5270
	냉연	냉연코일(FOB)	850	890	920	30	70
	아연도금	아연도금코일(FOB)	890	950	1,000	50	110
반제품	빌릿	흑해 수출(FOB)	568	590	600	10	32
	슬래브	브라질 수출(FOB)	795	890	910	20	115
한국 철강재	한국 유통 가격	열연(포스코산)	95	100	110	10	15
		(중국산)	94	100	110	10	16
		철근(국산)	77	83	84	1	7
		(중국산)	81	85	86	1	5
		형강(국산)	90	89	96	7	6
		(포스코베트남)	87	87	96	9	9
		앵글 찬넬(국산)	84	83	89	6	5
		앵글(수입산)	73	75	80	5	7
		잔넬(수입산)	75	77	82	5	7

- 철광석 원료탄 : 스폿계약 4/25~30일 평균
- 한국 품목별 유통가격 : 페로타임즈 자체조사, 각 품목 베이스 기준
- 철스크랩 : 최근 성약 및 오퍼 가격/페로타임즈 추정 \*한국 도착 가격은 운임/환율 등에 영향  
중국 : 4월 30일 기준 \*HRS101 수입은 CFR 기준
- 중국 오퍼 : 무역업체 및 외신, 페로타임즈 추정/중국 내수 가격 : 상해 4월 20일 기준
- 한국향 : 열연 냉연 도금재(본계강철 매주 1회), 철근(사강강철 월초 1회)
- 반제품 : 빌릿(플래츠 기준), 슬래브(AMM 기준)

※ 최종 업데이트 5월 1일

\*. 제공 : (주)페로타임즈

**2분기 방향성 '확정'...추후 동력은 시장에서 '재확인'**  
**국내외 철강사 5,6월 인상 확정 '하락요인 미약'**  
**추가 인상 검토 병행 '최대 목표는 증산 및 판매 증대'**  
**유통시장 공급부족 거래 및 호가 제한...수급 완화 시점 변곡점**

포스코 현대제철은 26일과 27일 잇달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업황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동일하게 강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3분기까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은 수급, 원가 측면에서 실질적인 근거가 뒷받침됐습니다.

철강재 가격은 5월 확실한 강세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4월 마지막주 원료 및 철강재 가격 상승세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열연은 1000달러대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냉연, 강관, 특수강 등 모든 제품은 2분기 내내 강세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철강사들의 실적은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큰 개선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1분기는 1월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있었던 반면 2분기는 4월 성수기 및 가격 인상 효과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빅3'는 물론 강관 특수강 등 철강 메이커들은 모두 5월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28일 수출 증치세 환급률 폐지와 함께 철스크랩(고철) 등 원료를 중심으로 한 수입 관세도 없었습니다. 한국 시장엔 철강 고철 등의 업황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철광석은 190달러대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외 철강 메이커들은 판재류, 봉형강, 특수강 모든 분야에서 역대급 마진폭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증산에 속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철광석 등 원료 수요는 이를 배경으로 강하게 뒷받침됩니다.

철강 및 철광석 수급은 타이트하게 전개되면서 2분기 내내 가격을 강세로 지지할 전망입니다.

철강재는 앞으로 실제 유통 거래에서 얼마나 안착될 지가 관건입니다. 철강 메이커들은 5월 인상된 가격으로 2분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추가적인 인상을 검토하면서 최대 생산 및 판매는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유통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거래는 제한적이고 아직까지 호가만 오른 상태입니다. 수급이 완화될수록 가격은 상승은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실수요 바닥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저항이 어느 강도로 나타날지에 주목할 시점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수입 공백에 따른 강세는 명백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종합] 中 수출·수입 관세 폐지 ‘내수안정’…韓 철강·고철 ‘상승효과’ 주목**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8>

페로타임즈 4월29일자

중국 정부는 5월1일부터 146개 철강 품목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세무총국은 수출 환급금 취소에 대한 공고(고시 2021년 제16호)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HS코드는 7205~7307로, 선재, 철근, 열연코일(강판), 후판, 스테인리스 스틸, H형강 등이다. 수입 관세도 함께 조정했다. 재활용철강원료(고철), 선철, 크롬철 및 기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없앴다. 빌릿 등 반제품도 포함돼 있다.

이번 세율 조정은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내년 혹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에 앞서 2025년 탄소피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제철소 감산(환경기준 미달업체 대상)과 철스크랩(고철) 사용량 증대, 저탄소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 환급률 폐지는 감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 정책 기조로 제철소들의 생산억제 방침을 올해 초부터 확고히 했다. 수요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이같은 생산 제한은 내수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19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를 공식 표명하면서 가격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환급세 폐지는 내수 공급을 늘리는 한편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내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철, 빌릿, 선철 등 원료와 반제품 소재 성격의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출 환급세 폐지를 통해 철강재 수출을 막고, 수입 관세 폐지를 통해 감산에 따른 부족분을 보충하는 셈이다. 단, 이번 조치를 놓고 하락 압력이 있을 것이란 단편적인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의 수급 상황과 철강사들의 수익성 향상 의지를 감안할 때 현격한 하락을 나타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한국 시장, 정확히 철강 메이커들에겐 호재다. 중국의 수출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국내 중국산 수입은 사실상 차단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부족한 공급 상황이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철강 메이커들의 판매증가와 추가적인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고철 가격 상승도 예견된다. 중국은 고철 수입 관세를 없애면서 수입을 본격화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원료는 부족하고, 중국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전기로 육성 및 고철 사용량 확대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 철광석

### 中 정부 생산억제 '역부족' 제철소 생산 '피치' 철광석 원료탄 신기록 경신 '재상승 국면'

철광석 가격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운 뒤 하향 조정됐다. 수요는 여전히 왕성하다. 중국의 수입산 재고는 매월 증가세에서 지난주 감소로 전환됐다. 5대 철강재 유통재고는 2000만 톤마저 붕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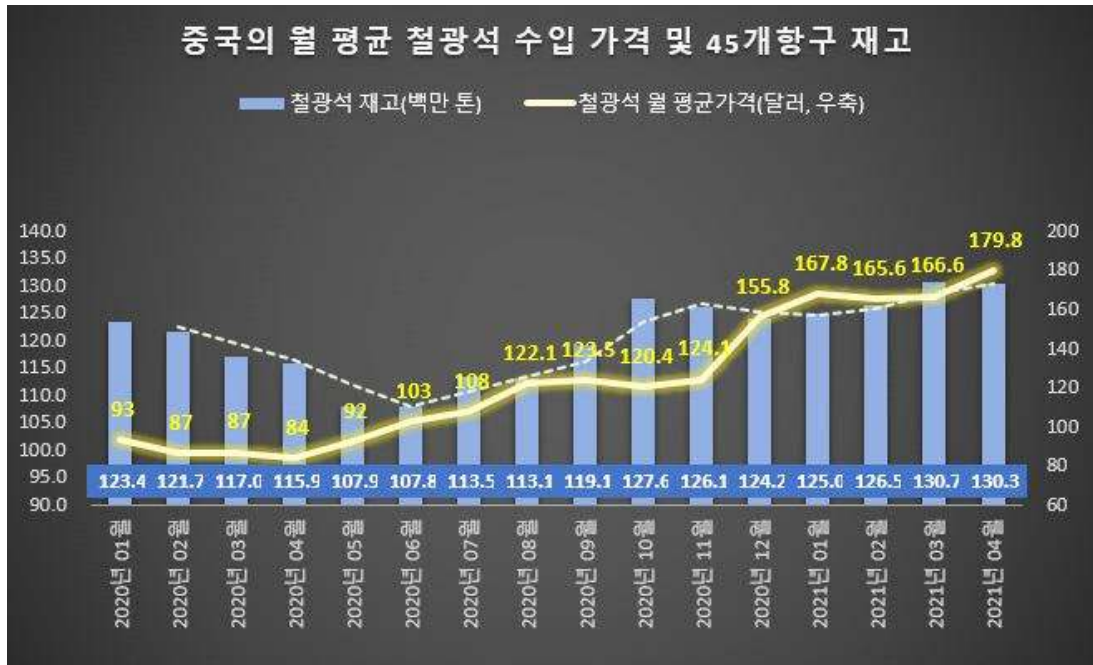
철강사들은 역대급 수익성을 확보, 최대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생산억제 정책이 실제 현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배경이다. 하반기 갈수록 하향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고가(高價) 행보는 단기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철광석 원료탄 싯물구매원가 : 4월 30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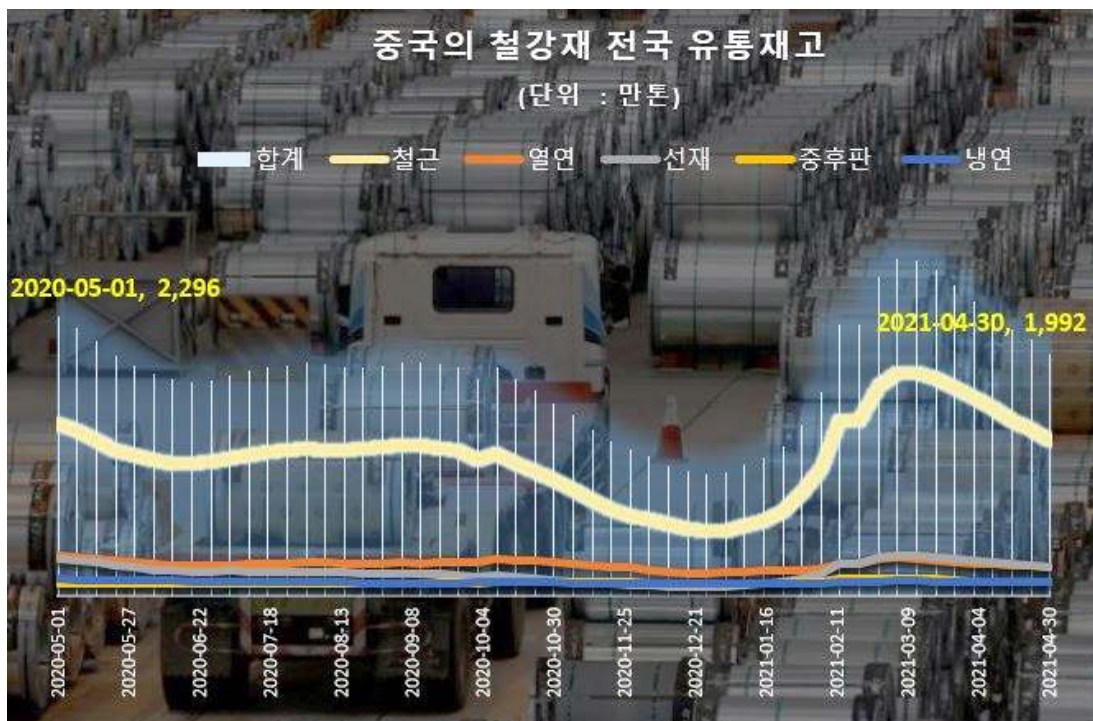
단위 : 달러/톤	중국 수입		싯물구매원가
	철광석(Fe 62%)	원료탄(강점결탄)	
2020-12-21(최고점)	176.1	190.2	436.1
2020-12-31	159	200.1	416.5
2021-01-29	157.8	217.73	428.7
2021-02-26	176.3	218.6	459.2
2021-03-25(최저점)	159.9	213.5	428.7
2021-03-31	164.3	214.2	436.2
2021-04-27(최고점)	193.7	222.7	490.5
2021-04-28	191.1	225.0	488.2
2021-04-29	191.3	225.3	488.8
2021-04-30	187.2	226.8	483.4
3월 말 대비	14.0%	5.9%	10.8%
	23.0	12.6	47.1
2월 말 대비	6.2%	3.8%	5.3%
	10.9	8.2	24.2
1월말 대비	18.6%	4.2%	12.8%
	29.4	9.1	54.7
12월말 대비	17.7%	13.4%	16.1%
	28.2	26.7	66.9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중국 45개 항구의 철광석 재고



▷ 중국 전역의 5대 철강재 유통재고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 철스크랩(고철)

국내 5월 상승 전환...중국향 수출 중량 530달러  
국내외 철근 등 초호황 고철 강세에도 마진폭↑  
한국-해외 시세 격차 8만 원 제강사 국내 집중

국내 철스크랩(고철) 시장은 5월 상승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4월 중순까지 2만 원 내외의 하락 조정을 받은 이후 마지막주까지 보합을 기록했다. 세아베스틸, 포스코는 1일부로 비교적 큰 폭의 인상을 실시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등의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대 구매처인 현대제철은 올해 수입을 줄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철근 형강 등 제품 시장이 초호황을 기록하는 가운데 증산 기조가 강한 상태다. 철근 형강 마진폭은 국내외 모두 올해 최대치에 이르고 있다. 고철 가격은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1. 미국

- 터키의 HMS No.1&2(8:2) 수입가격 CFR 440달러. 일주일 10달러 이상 상승

**vs 서부지역 아시아향 오퍼 가격 466달러 10달러 이상 상승**

※ Tolmets - Koç Metalurji : 15 June Latest Shipment

HMS No.1&2 \$440(2만3500톤)/Shredded \$445(5000톤)

Bonus \$450(2500톤)/Bushling \$455(1700톤)/Rail \$455(2300톤)

- 터키 철근 수출 가격 FOB 663달러 10달러 이상 상승

※ 터키 철근-고철 스프레드(격차) 221달러. **최대 마진폭 확보**

- 대만 컨테이너 수입 HMS No.1&2 431달러. 10달러 이상 상승

### 2. 일본

- 성약 건

H2(경량) 베트남 CFR 465달러(약 52만 원)

HRS101(중량) 중국 CFR 520달러(약 58만 원)

HS(중량) 한국 CFR 5만2500엔(약 54만 원)

### 3. 오퍼 동향

일본 H2 베트남 CFR 465~480달러

한일 HRS101 중국 CFR 505~530달러

유럽 HMS No.1&2(7:3 or 6:4) 베트남 CFR 475달러

미국 HMS No.1&2(8:2) CFR 대만(컨) 425~440달러

※ 한국 제강사 구매 평균(A등급 기준) : 세아베스틸 포스코 인상 미적용, 인상기조 확대 예상  
생철 47만 원, 중량 46만 원, 경량 44만 원, 선반설 42만 원



## ◆ 철강재

### 中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600만톤' 수입 공백 열연 110만 원 형강 100만 원 초읽기 철근 '품귀현상' 수입산 주도 추가 상승세 관측

철강재는 수출 가격을 기준으로 열연 CFR 1000달러대 강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본계강 철은 6월 한국향 선적분으로 FOB 톤당 860달러에 오pper했다. 현지 오퍼 가격은 이보다 높은 922달러다. 중국의 증치세(기준 13%) 폐지에 따라 사실상 1000달러를 넘어섰다. 철근은 이렇다 할 오퍼가 없다. 내수 가격은 4월30일 기준 열연 5840위안, 철근 5270위안으로 일주일 새 140위안 110위안이나 올랐다.

한국의 중국산 수입(2020년 기준 602만 톤)은 전체 1240만 톤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수입공백에 따른 재고부족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4월부터 유통량 공급을 늘릴 예정이었지만 하공정(자동차강판 등 냉연도금재) 생산량이 달리는 형국 이어서 1분기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철강재 시장은 열연 110만 원(포스코 대응재 기준), 철근 84만 원(국산 SD400 10.0mm), H형강 96만 원(건축용 소형 기준) 등 초고가 행보에 있다. 일반형강 시장은 일주일 새 5만 원 이상 급등하면서 국산 채널 89만 원, 수입산 앵글 80만 원, 채널 82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철근의 경우 수입산이 국산을 역전하면서 시장 가격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다른 제품 역시 같은 추세로 흐를 것으로 점쳐진다.

#### ▷ 중국 내수 가격 총괄

##### 중국 상해 지역의 주요 품목별 가격 현황

단위 : 위안	철근	열연	냉연	도금재	선재	후판
2021-03-31	4,890	5,410	5,810	6,090	5,010	5,290
2021-04-23	5,160	5,700	6,000	6,370	5,500	5,570
2021-04-29	5,250	5,850	6,180	6,520	5,650	5,690
<b>2021-04-30</b>	<b>5,270</b>	<b>5,840</b>	<b>6,180</b>	<b>6,520</b>	<b>5,670</b>	<b>5,700</b>
(달러 환산)	815달러	903달러	956달러	1009달러	877달러	882달러
전날 대비	▲20	▼10	-	-	▲20	▲10
23일 대비	▲110	▲140	▲180	▲150	▲170	▲130
3월말 대비	▲360	▲440	▲370	▲430	▲640	▲400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유통 거래 가격 현황

단위 : 만 원	열연		철근		H형강			앵글 및 채널(잔넬)		
	포스코 대응재	중국산 (SS400)	국산	중국산	국산	포스코 베트남	바레인 말레이시아	국산 앵글 잔넬	수입산 앵글	수입산 채널
2021-03-01	92	90	75	75	89	87	86	84	75	77
2021-03-08	92	90	76	76	92	87	86	84	73	75
2021-03-15	92	90	76	78	90	88	87	84	73	75
2021-03-22	92	90	76	79	90	88	87	84	73	75
2021-03-29	95	94	77	81	90	88	87	84	73	75
2021-04-05	97	96	82	83	89	87	86	83	73	75
2021-04-12	100	100	82	83	89	87	86	83	73	75
2021-04-19	100	100	83	85	89	87	86	83	75	77
2021-04-26	110	110	84	86	96	96	96	89	80	82

▷ 본계강철 한국향 오퍼 : 열연 FOB 860달러/냉연 920달러/GI 1000달러  
현지 오퍼 열연 FOB 922달러, 철근 702달러



\*. 제공 : (주)페로타임즈

**[핫이슈] 메이커는 ‘황금기’ 유통은 ‘보릿고개’  
증치세 폐지 수입공백 ‘파동’**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9>

페로타임즈 4월 30일자

포스코 현대제철 고로 판매증대 인상효과  
동국 KG동부 세아 등 하공정 고른 개선  
SSC 유통 공급부족 심화 ‘팔 물건 없어’  
무역업계 중국산 수입 사실상 중단  
年 600만 톤 수입공백 단기간 해소불가  
포스코 2분기 유통향 공급 확대 계획 무산  
중소 유통 재고바닥 ‘개점휴업’ 적지 않아

올해 철강 가격은 폭등세다. 열연은 1000달러를 넘었고, 철광석은 200달러, 철스크랩(고철)은 500달러대로 스케일이 커졌다. 역사상 최고점인 2008년을 웃돌고 있다.

2008년 당시는 단기폭등 이후 폭락세가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혼돈’이 극심했다. 올해가 확연히 다른 점은 급등세가 올해 초부터 4월 말 현재까지 장기가 계속되는 데다 5,6월 추가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전세계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미국 중국 등 각국의 재정지출 여력 확대에 의해 철강 수요가 뒷받침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이룰 것으로 예측되는 3분기 이후 조정이 일어날 것이란 예측은 현실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양대 고로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최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철광석 등 원료 가격은 하반기 갈수록 글로벌 광산기업의 생산 및 공급 확대에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추가 상승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철강 가격은 더 높게 뛸 수 있는 여건이다. 포스코는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 13.8%, 현대제철은 7.0%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2분기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2분기는 최대 성수기로, 수요 증가에 따라 판매량은 더 늘어나고 특히 가격 인상 효과는 겨울철 비수기가 포함된 1분기보다 월등하다. 현재 열연 이익률은 20%를 넘어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등 전문압연(리롤러), 특수강, 강관 분야 할 것 없이 판매 증대와 인상 효과는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스틸서비스센터(SSC)를 포함한 유통업계, 특히 철강 수입업계는 ‘보릿고개’다. 가격

인상 효과는 2~3월로 사실상 끝이 났다. 단기간 폭등으로 기존 보유재고에 대한 평가손익이 크게 늘어났지만 그 이후로는 철강 메이커들의 인상기조가 거세지면서 기대 이익은 제한됐다.

물론 시중 거래 가격도 상승이 과열되면서 이익률은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재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폐지에 따라 국내 부족한 재고는 채울 길이 사실상 사라졌다.

국내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은 20%대에서 작년 10%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0년 수입량은 1240만 톤으로 공식 집계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의 증치세 폐지로 인해 올해 수입은 더 줄어든 전망이다. 작년 중국산 수입량은 602만 톤으로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현재 국내 수급이나 철강 메이커들의 생산 수준을 볼 때 600만 톤 규모를 단기간 내 메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철근을 비롯해 열연, 후판, 냉연, 아연도 등 할 것 없이 신규 계약은 중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통업계의 재고는 품목에 따라 평소 절반은커녕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호가만 열연 기준 110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팔 물건이 없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경우 4월부터 유통향 공급을 늘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공정(자동차강판 등 냉연도금재) 생산량이 달리는 형국이어서 1분기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포스코 판매점 관계자는 “일부 판매점 공급량을 늘린 경우는 유통향이 아닌 가전과 자동차로의 투입량이 늘어났다”면서 “시중 재고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규모 유통상들은 재고가 동이 나면서 매출은 되려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유통업체 한 대표는 “가격만 높아졌지 물건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인 곳이 적지 않다. 철강 메이커만 활황이지 유통 시장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 제공 : (주)페로타임즈